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 형 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최근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창작과비평”이나 ‘문학동네’ 같은 좌파 문예지들만 지원하고 건전 문예지들은 지원을 안 해서 건전세력이 불만이 많으니” 해당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한다. ‘좌파 문예지’ 제작자들을 감옥에 처넣지 않고 그저 문출만 죄었으니 차라리 고맙다고 해야 할까.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반대자들을 배제(exclusion)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멸(extermination)시켜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배제(exclude)라는 단어에는 포함(include)이라는 반대말이 있지만 절멸(exterminate)에는 없다. 그것은 말

메릴 스트립의 용기

그대로 끝장내 버리는(terminate) 일이다.

저들을 ‘괴물’이라고 간주해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를 그들로부터 완벽하게 구별/구원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윤리적 판타지다.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끔찍한 이들에게라도 그런 욕망을 품는다. 비근한 예로 나는 광화문에서 단식 중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는 이들을 보며 저들을 절멸시켜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나는(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인종과 공존의 윤리를 교육받은 민주 시민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감히 그런 욕망을 실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만?

그리스로 권력은 위험한 것이다. 배제 혹은 절멸에의 욕망을 강하게 품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될 때 특히 그렇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한 것이다. 권력자가 자신의 욕망에 패배하지 않도록 그의 욕망을 대신 감시해 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8일 골든 글로브 시상식장

에서 메릴 스트립이 그의 놀랍도록 용기 있고 지적이며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통해 내게 새삼 가르쳐 준 사실이기도 하다. 5분 30초 동안 진행된 그 연설은 구조적으로 완벽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소개할 가치가 있다.

메릴 스트립은 먼저 ‘할리우드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현장에 있는 여러 배우들의 출신 지역과 성장 배경을 다정한 어조로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단지 예닐곱 명만을 언급했을 뿐인데도 그 번번은 다양했다. 차이를 차이 자체로 존중하는 그 호명만으로도 이미 훌륭했다. 그 호명의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할리우드는 다양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로 들끓는 곳입니다. 이들을 내 나뭇잎으로 미식축구와 격투기 외에는 볼 것이 없겠죠.” 트럼프의 배타주의를 비꼬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그는 ‘배우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배우가 하는 유일한 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릴은 작년 최악의 연기

로 트럼프가 장애인 기자를 흉내 내던 순간을 꼽았다. 타자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연기의 본질인데 트럼프의 그것은 정반대의 목적에 기여하는 연기였기 때문이라는 것.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메릴은 조금 울먹였다. “그 연기는 제 가슴을 무너지게 했고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였으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연설이 ‘권력이란 무엇인가’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선동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제 지위를 이용할 때,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것입니다.” 단 1초도 버릴 것이 없는 5분 30초의 연설이었지만 나는 특히 이 문장이 밑줄을 그어 우리의 대통령에게 보내 드리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메릴은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그 말을 요약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점을 곱씹고 싶다. 우리의 언론이 지금 열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몰러나’는 권력이지만, 그날 메릴 스트립이 무대에서 맞서고 있었던 것은 ‘들어서는’ 권력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社 說

속도 내는 탄핵 심판에 ‘지연작전’ 통하겠나

현재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당초 3~4월쯤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심리 일정을 보면 보다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현재가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늦어도 2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갖가지 지연작전과 물타기 작전을 펴고 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조직적인 지연·방해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죽하면 검찰마저 이들의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겠는가.

박 대통령 측은 결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는 말로 물타기를 하려 든다. 세월호 7시간 해명과 관련해서도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보

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당시 노 대통령의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일정보에는 노 대통령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분 단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진실이 여기 있다. 노 대통령은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직접적은 대답은 회피한 채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현재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일부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어렵기는 일이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 혜택 법안 재개정을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기업(유턴기업)의 세제 혜택 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대한 재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특법이 비수도권 지역에 역사별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수도권 의원들이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본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수도권 유턴기업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잇달아 보도한 지 1주일이 안 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반갑다. 경제 대국들이 신보호무역주의를 내걸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내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역은 빈껍데기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새누리당 임웅수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이날 각 의원실로 보냈다. 임 의원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특법 재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2016년 12월 2일) 두 달도 안 돼 다시 수출대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위(한신협)가 수도권 유턴기업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잇달아 보도한 지 1주일이 안 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반갑다. 경제 대국들이 신보호무역주의를 내걸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내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역은 빈껍데기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새누리당 임웅수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종교칼럼



장 형 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사무국장

상대성이론과 핵무기를 개발한 인류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차대전은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나 4차대전은 돌과 방망이로 싸울 것이다.” 이는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멸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핵무기 개발자의 후회였습니다.

뒤돌아봅시다. 인류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1차 세계대전은 병사만 900만 명이 사망했고 총 32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공격의 신화’였습니다. 공격의 신화란 1905년 독일군이 선제공격으로 승리한 쉐르펜전쟁으로 인해 나온 말로써, 이 시기 유럽에서는 먼저 공격한 나라가 승리한다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신화의 신념은 서로 언제 공격하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군사무기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방어를 위해 이

사람이 제일 큰 보배

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끼리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모른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싸인 유럽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에게 쏜 돌발의 총성에 의해 그동안 긴장관계에서 형성된 연합군이 발동되어 무참한 인류 최악의 전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다시 지금으로 와서 봅니다. 장기적인 남북한의 긴장 아래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시작으로 선제타격론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연합전선을 다시금 추스르며 동맹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동남아 동맹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한일위안부, 독도문제의 첨예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남아 각국마다 올해 군비예산을 올리며 긴장된 전쟁준비에 앞서고 있습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 발발이전의 유럽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몹서리가 처집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유가 맞출법도 맞지 않는 글을 쓰는 최순실에 의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겠다는 사실 또한 경악케 합니다.

이제는 앞을 봅시다. 우리 인류는 몇 만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수없는 전쟁 끝에 평

화라는 사상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못을 치넣어야 할 때가 있고, 나무가 상하더라도 못을 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혹은 패인다 할지라도 빼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촛불을 기록할 것이고, 오늘의 촛불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돼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봅시다. 새해 소원 중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계획, 그리고 보니 요즘은 새해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못 지킬 계획을 애당초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일이라면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반성이 되어서 앞을 보게 되지만, 하지 않고 하는 후회는 미련이 돼 뒤를 보게 되는 까닭입니다.

실패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넘어진 거리만큼 나에게 거름이 되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입니다. 저는 2017년 새해계획에 ‘사람에게 공(功)을 돌이켜’라는 계획을 한 줄 넣어 세웠습니다.

요즈음 우리들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혹은 삶의 현장에서 맘을 흘리고,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은 나만 잘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주변을 둘러보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극락과 지옥은 사실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팔이 앞으로 묶여 있답니다. 지옥은 서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애를 쓰나 손이 닿지 않아 항상 굶주려있는 곳이고, 극락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입에 넣어 먹여 주어 풍성하고 웃으면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극락인지, 지옥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17년 한 해는 모두 행복한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 고



김 동 민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2030년 A씨는 최적화된 생체리듬에 맞추어 잠에서 깨어난다. 수면 중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3D프린터는 그에게 맞는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간밤에 충전된 무인 전기차는 A씨의 목적지를 인지하고 운전 준비를 한다. 오늘은 인공지능(AI)에 의해 분석된 방대한 양의 개인별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 플랫폼을 도출하는 연구회의가 있는 날이다. A씨는 아직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영역의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에너지최적화 연구원’이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사물과 디지털 간 경계가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를 키우자

없어지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전세계 그리고 전산업을 대상으로, 전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돌아켜보면, 1차는 동력(증기기관), 2차는 전력(자동화), 3차는 디지털(인터넷)로 인해 산업혁명이 촉발돼 세상을 변화시켜왔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들은 앞서 예시한 2030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생명공학, 최적화 기반 AI를 비롯해 매우 다양하며, 모두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이를 통해 매우 편리해질 것이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 소비자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축복이라고 보기만은 힘들다. 일자리 감소의 우려 때문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이슈가 아니라 당장 ‘현재’의 생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허버드 비즈니스리뷰 편집장은 “어떤 직업이 기계에 의해 사라질 것인가?”가 아니라 ‘기계의 도움을 받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라 조언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IoT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기계가 할 일이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 어디에 활용할지 결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기계와 경쟁이 아닌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아우르면서 사회적인 면도 고려할 줄 아는 ‘심화+통합’의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빛가람에너지밸리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미래 에너지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우리지역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는 ‘지능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준비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앞서 예시한 ‘에너지최적화 연구원’은 특정 분야에 깊게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또한 넓게 사고할 줄 아는 ‘T자형 인재’여야 한다. T

자형 인재는 기계가 하는 일을 직접 할 줄 알면서도 기계를 활용하여 일을 쉽게 진행하고 이를 위해서 일에 대해 더 배우고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한다.

보편화 교육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학부교육에서 깊은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 학부교육에서는 전문분야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만드는데 초점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취지로 올해 신설되는 동신대학교의 에너지융합대학은 전통적인 전기, 기계, 재료, IT 등의 전문성을 위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모토식 융합전공을 통해 T자형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1·2·3차 산업혁명 때도 ‘기계는 일자리를 없앤다’는 경고가 매번 대두되어왔다. 하지만 사라진 일자리만큼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논란은 불식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에너지융합대학이 우리지역의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인터넷만 뒤지면 죄음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인류가 탄생한 이래 최고의 죄음제는 역시 ‘부(富)와 권력(權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힘든 망명 시절을 거쳐 왕정복고에 성공한 영국 왕 찰스2세(1630~1685)는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하느님도 남자가 약간의 쾌락을 누렸다고 해서 파멸시키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찰스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1633~1701)도 “남자에게, 특히 위대한 남자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가 결정적인 것

은 여자들과 금치된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악덕 가운데 가장 태극적이며, 초기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 권력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편을 폐위시키고 제위에 오른 러시아 예카테리나2세(1729~1796)의 ‘남성 편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 역시 ‘여대생과 젊은 여가수’를 술자리에 불러낸 대통령을 갖고 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른 왕이나 대통령의 사례건 하지만 ‘크든 작든 권력을 쥔’ 사람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이야기다.

부자들의 여동 속 일탈도 낯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얼마 전 국내 최대 재벌 그룹 회장의 ‘값비싼 성매매’ 현상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그렇다면, 부와 권력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 이상의 성적 일탈을 ‘당한 듯’ 추구하고, 또 그 시도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얼까.

무수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조장하는 ‘부와 권력의 속성’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악욕강식’의 세상을 이야기하며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굴복’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을 터다.

최근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이 그 신분을 ‘권력’ 삼아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칠레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죄음제’에 취해서야 세상이 바로 보일 리가 없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할 대책이 절실하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사회 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220-0697)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